

〈일반논문〉

베이핑의 도시 활성화 방안 수립 과정* -난징국민정부 초기의 관광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홍 영 미 **

〈목차〉

- I. 머리말
- II. 베이핑 정치환경의 변화
- III. 관광 진흥정책의 부침
- IV. 『베이핑 유람구 건설계획』의 수립
- V. 맺음말

[국문초록]

1928년, 국민정부가 난징을 수도로 확정하면서 베이징은 수도에서 일개 지방 도시인 베이핑으로 개정되었다. 수도 지위의 상실은 도시의 불황을 가속화시켰고, 시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에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관광 진흥을 골자로 하는 베이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북벌로 중국의 통일이 완성된 이후에도 장제스와 군벌들 사이의 세력 다툼은 계속되었고, 베이핑의 정치지형은 그 영향을 받아 급변하고 있었다. 시장과 실무진의 잦은 교체 속에서 관광 진흥 정책도 부침을 거듭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35년, 행정원이 베이핑에 정부 정령위원회를 세우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정치적으로 일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임.

** 경희대학교 글로벌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화되었고, 시정부는 그동안의 논의와 계획에 기초하여 『베이핑 유람구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베이핑의 발전 방향을 관광도시로 설정하고 명승고적 보수, 도로·교통건설, 관광객 숙박 시설 건설, 위락시설 건설, 관광업무전담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 주제어

난징국민정부, 시정부, 베이핑, 관광, 유람구

I. 머리말

본고는 『베이핑(北平) 유람구(遊覽區) 건설계획』(이하 『유람구』로 약칭)의 수립을 주된 소재로 삼아 난징(南京)국민정부 초기 베이핑 시정부가 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국민정부는 1928년 6월에 난징을 수도로 확정하고 베이징(北京)을 베이핑특별시로 개정하였다.¹⁾ 1930년 10월에 이르러 베이핑은 특별시의 지위마저 잃고 허베이성(河北省) 소속의 지방 도시로 격하되었다. 수도의 지위를 상실한 충격은 베이핑의 불황을 심화시켰다. 베이징은 700여 년간 전국에서 물자가 집중되는 수도였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따라서 산업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

1) 청조는 징두(京都)와 부근 24개 현을 특별행정구인 순티엔푸(順天府)로 삼았다. 중화민국 수립 후에도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던 베이양(北洋)정부는 1914년에 순티엔푸를 징자오(京兆)로 개정했고, 1918년에 이르러 다시 징두시로 개정하였다. 1928년, 징두는 베이핑특별시로 격하되었다(北京市地方志 編纂委員會 編, 『北京志: 政務卷民政志』, 北京出版社, 2003, 534-536쪽).

구도 높지 않았다. 즉 베이징은 소비도시였다. 중화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베이징은 수도의 지위에 의존하여 소비도시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28년에 정치 중심이 난징으로 바뀌면서 베이징의 주요 소비층이던 고위직 관리와 부호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²⁾ 린송허(林頌河)의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1928년 12월 기준 베이핑 시민의 구매력은 전년 대비 약 60% 감소하였고, 베이징에서 베이핑으로 개정된 지 일 년 만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의 약 30%에 육박했다.³⁾

이뿐만 아니라 1928년부터 시행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리로 베이핑 특별시의 재정은 더 열악해졌다. 전체 재정수입의 약 70%가 세금인 상황에서, 양자의 재정이 분리된 후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각종 통과세와 주류·담배세가 중앙으로 회수된 것이다.⁴⁾ 더 큰 문제는 당시 베이핑의 재무행정이 통일되지 않아 시정부뿐 아니라 공안국도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지출했다는 점이다. 공안국이 독점하는 조세수입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으므로, 시정부는 그 나머지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여 시정을 운영해야 했다.⁵⁾ 하지만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고 교부된 보조금도 베이핑의 재정손실을 메꾸기엔 역부족이었다.⁶⁾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부는 새로운 도시

2) 1928년 이후 베이핑의 시장경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許慧琦, 『故都新貌: 遷都後到抗戰前的北平城市消費(1928~1937)』, 台灣學生書局, 2008을 참고.

3) 〈平市經濟狀況之今昔觀〉, 《新晨報》 1928.12.4, 6면; 林頌河, 〈統計數字下的北平〉, 《社會科學雜誌》 2(3), 1931, 404-405쪽.

4) 雋冬, 〈平市財政制度之檢討〉, 《市政評論》 2(2), 1934, 5쪽.

5) 〈五年來本市歲入之分析〉, 《北平市政府統計特刊》 2, 1934, 13쪽.

6) 〈市府訴窮〉, 《華北日報》 1931.1.27, 6면. 자세한 내용은 홍영미, 「베이핑의 재정실태와 관광 진흥 논의」, 『도시연구』 25, 2020 참고.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다. 난징국민정부 초기에 집중된 베이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점차 관광 진흥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관광산업은 대규모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장려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정부의 필요에 부합했고, 옛 수도인 베이핑이 가진 정치색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에도 부합했다. 무엇보다 베이핑에는 700여 년간 축적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소요 비용과 시간 면에서 공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현실적이었다.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1928년 말부터 베이핑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여러 위원회도 조직하였으나 급변하는 정치지형의 영향을 받아 지지부진하다가 1934년에 『유람구』를 수립하면서 비로소 실행에 옮겨졌다.

『유람구』는 난징국민정부 시기 베이핑의 도시발전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이미지 구축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야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⁷⁾ 그중 중국학자 왕쥬(王煦)는 정치적 관점에서 시정의 현대화와 도시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 베이핑의 도시계획을 정리하였다. 그는 1928년부터 끊임없이 시도된 각급 정부의 베이핑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관광에 초

7)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Madeleine Yue Dong, *Republican Beijing: The City and Its Histories*,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王亞男, 『1900-1949年北京的城市規劃與建設研究』, 東南大學出版社, 2008; 許慧琦, 『故都新貌: 遷都後到抗戰前的北平城市消費(1928-1937)』, 台灣學生書局, 2008; 王煦, 『舊都新造: 民國時期北平市政建設研究(1928-1937)』, 人民出版社, 2014; 孫冬虎·王均, 『民國北京(北平)城市形態與功能演變』, 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15; 王謙, 『北平文化旅遊中心建設與故都城市空間生產』, 『中國近代建築研究與保護』 10, 清華大學出版社, 2016; 李劍青, 『重寫舊京: 民國北京書寫中的歷史與記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7; 王建偉, 「20世紀30年代北京的舊都文物整理計劃」, 『北京檔案』 7, 2019; 「國都南遷與北平城市發展路徑的討論及其規劃(1928—1935)」, 『江蘇社會科學』 1, 2020 등이 있다.

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유람구』와 이전 계획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베이징사회과학원 연구원인 리지엔칭(李劍靑)과 왕지엔웨이(王建偉)도 최근의 연구에서 『유람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도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부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베이핑의 관광 진흥정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본고는 정부 차원의 논의로 범위를 한정하여 난징국민정부 초기 베이핑 정치지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광 진흥정책의 부침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람구』를 그 이전에 시도되었던 일련의 계획들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정치환경의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유람구』가 그것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통해 이 시기 베이핑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II. 베이핑 정치환경의 변화

1928년부터 1933년까지, 베이핑 시장의 거취는 장제스(蔣介石)와 군벌들 사이에 벌어진 각축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1928년 5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과 텐진(天津) 일대를 점거하자 총사령 장제스는 옌시산(閻錫山)에게 이 일대의 점수를 맡기고 6월에 그를 징진위술사령(京津衛戍司令部)에 위임하는 한편, 그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국민당 베이핑정치분회(北平政治分會)를 세우고 허치공(何其鞏)을 베이핑특별시 시장으로 임명하였다.⁸⁾ 허치공은 일찍이 서북(馮系) 군벌 내부에서 변방 독판(督辦)과 비서

8) 曹子西 編, 『北京通史』 第9卷, 北京燕山出版社, 2012, 36-38쪽.

등을 역임한 인물로, 1926년에는 평위상(馮玉祥)이 조직한 총사령부의 비서장을 맡았고 그 후에는 위난(豫南) 행정장관 겸 민단군(民團軍) 군장, 내방처(內防處) 처장 등의 요직을 도맡다가 국민정부 고문에 초빙되었다. 1928년 6월, 그가 제1대 베이핑특별시 시장 자리에 오른 것도 평위상의 추천 덕분이었다.⁹⁾

이 사이 평위상과 갈등이 깊어진 장제스는 1929년에 이르러 옌시산과 함께 평위상의 군대를 토벌하기로 협상하였으나, 옌시산은 평위상을 연금한 후 장제스와 정치적 흥정을 시작했다. 1929년 6월, 핑진경비사령(平津警備司令)이던 장인우(張蔭梧)가 허치공을 밀어내고 시장직을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 장인우는 옌시산의 심복으로, 바오핑 육군학교(保定陸軍學校)를 졸업하자마자 산시성 독군공서(山西省督軍公署) 참모를 맡았고 그 후에 타이위안(太原) 국민사범학교 군사훈련 주임, 산시 육군 제10단 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장인우는 제2대 베이핑특별시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안국장직도 겸임하여 임기 내내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다.¹¹⁾

1930년에 장제스와 옌시산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장제스를 토벌하기 위해 산서(晉系) 군벌을 중심으로 광서(桂系) 군벌과 서북 군벌이 베이핑에 운집하기 시작했고, 장인우는 시장으로서 난징국민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곧 '중화민국 육해공군(陸海空軍)'을 조직

9) 劉紹唐主編, 『民國人物小傳』第7冊, 三聯書店, 2015, 52-53쪽. 독판은 베이양정부 시기 행정장관을 가리킨다. 내방처는 풍옥상이 소련의 육군을 모방하여 설립한 기구로, 간첩에 의한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탐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顏品忠, 主編, 『中華文化制度詞典』,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8, 267쪽;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內蒙古自治區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內蒙古文史資料』第24輯, 內蒙古文史書店, 1986, 202쪽).

10) 曹子西編, 『北京通史』第9卷, 北京燕山出版社, 2012, 42쪽.

11) 劉國銘編, 『中國國民黨百年人物全書』(上), 團結出版社, 2005, 1237쪽.

하여 장제스에게 선전 포고를 했다. 1930년 5월, 장제스와 이들의 갈등은 중원대전(中原大戰)으로 폭발했다. 8월, 국민당 개조파(改組派)와 서산회의파(西山會議派) 등은 베이핑에서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 확대회의’를 열어 장제스 타도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결의하고, 9월 1일 베이핑에 또 하나의 ‘국민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옌시산, 왕징웨이(汪精衛), 평위상, 리종런(李宗仁) 등 7인이 위원으로 추대되었으며 옌시산이 주석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북(奉系) 군벌 장쉐량(張學良)이 장제스를 지지하며 베이핑으로 진군해왔고 전세가 크게 불리해진 ‘국민정부’내 군벌 동맹은 순식간에 와해하여 동북군이 베이핑에 도달하기도 전에 각지로 흩어졌다. 장쉐량은 열흘도 채 걸리지 않아 베이핑과 텐진 일대를 접수했다. 난징국민정부는 곧 장쉐량을 육해공군 부총사령에, 위쉐중(于學忠)을 평진위술사령(平津衛戍司令)에, 바오위린(鮑毓麟)을 베이핑시 공안국장에 위임하였다. 이들은 모두 동북 군벌 장교들이었다.¹²⁾

한편 장인우가 떠난 베이핑시 시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장쉐량은 북양 정부 시기 시정부 역할을 담당한 징두 시정공소(京都市政公所)의 독판 주치치옌(朱啓鈐)에게 수차례 시장직을 제의했지만, 주치치옌은 한사코 고사하였다.¹³⁾ 시장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던 장쉐량은 결국 베이핑시 재무국장 왕타오(王韜)로 하여금 ‘임시대행(暫行護理)’하게 했다. 주목할 점은 장쉐량은 왕타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 왕타오는 일찍이 동북군사령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¹⁴⁾ 왕타오의 뒤를 이어

12) 曹西編, 『北京通史』第9卷, 北京燕山出版社, 2012, 43~45쪽.

13) 〈北平市長問題〉, 《益世報》1930.10.8, 2면; 〈宋子文返京〉, 《西安日報》1931.1.19, 1면.

14) 唐德剛 訪錄, 『張學良世紀傳奇』上, 山東友誼出版社, 2002, 403쪽. 베이핑시장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는 모두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는다. 그런데 護理市長은 임시 대리직이므로 지방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劉蘇, 「民國時期北平歷任市長及有關問題」, 『檔案與北京史國際學術討論會文集』上冊, 中國檔案出版

베이핑시장 직을 겸임한 칭다오(靑島) 시장 후뤄위(胡若愚)도 실은 장쉐량의 오랜 친구였다. 후뤄위는 국립 베이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장쥘린(張作霖)의 군사고문으로 있는 동안 장쉐량과 우애를 다졌다. 이후 베이징정부 임시 참정원, 국민정부 위생부 차장 등의 요직을 거쳐 칭다오 시장이 되었으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당시 국민당 베이핑정치분회의 주석이던 리위잉(李煜瀛)이 그에게 시장직의 겸임을 부탁한 것이다.¹⁵⁾ 1931년 7월, 제3대 베이핑시장으로 취임한 저우따원(周大文) 역시 장쉐량의 친구였다. 저우따원은 원래 장쥘린의 전보해독관(譯電員)이었다가 평티엔 독군서(奉天督軍署)와 성장공서(省長公署), 베이징의 장쥘린 대원수부(大元帥府)에서 잇따라 전무처(電務處) 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33년 3월에 장쉐량이 산해관 방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자 저우따원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¹⁶⁾

〈표 1〉 1928-1933년 역대 베이핑시장 계파

성명	직명	계파	임기
何其鞏	시장	馮系	1928.06 — 1929.06(12개월)
張蔭梧	시장	晉系	1929.06 — 1930.10(16개월)
王韜	임시 시장직무 대행	奉系	1930.10 — 1931.03(5개월)
胡若愚	겸대 시장	奉系	1931.04 — 1931.06(2개월)
周大文	시장	奉系	1931.07 — 1933.06(23개월)

(趙家驊 選編, 「1928年至1938年北京市政府歷任職官表」, 『北京檔案史料』 1, 1987, 7-16쪽; 劉蘇, 「民國時期北平歷任市長及有關問題」, 『檔案與北京史國際學術討論會文集』 上冊, 中國檔案出版社, 2003, 304-305쪽.)

社, 2003, 304-305쪽).

15) 魯海, 『靑島民國往事』, 靑島出版社, 2012, 227-228쪽; 唐德剛 訪錄, 『張學良世紀傳奇』 上, 山東友誼出版社, 2002, 403쪽.

16) 陳玉堂 編, 『中國近現代人物名號大辭典』 續編, 浙江古籍出版社, 2001, 193쪽.

1933년 5월, 행정원에서 주베이핑 정무정리위원회(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를 설립하면서 베이핑시와 중앙정부는 비로소 정치적으로 일원화되었다. 정무정리위원회는 반전시 상태인 화베이(華北) 여러 도시의 행정체계를 정리하고 일본과의 교섭을 주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에는 장제스의 추천을 받은 황푸(黃郛)가 임명되었다.¹⁷⁾ 장제스는 황푸에게 베이핑시장에 적합한 인물의 추천을 부탁했는데, 이때 황푸의 추천을 받아 1933년 6월에 제4대 시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위안량(袁良)이다.¹⁸⁾ 위안량은 황푸가 내각총리 직무를 대리하던 1924년에 그의 비서장으로 일했고, 1928년에 황푸가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외교부 제2사(亞洲司) 사장으로서 1927년에 발발한 '난징사건'의 사후처리를 담당하였다.¹⁹⁾

황푸가 위안량을 베이핑시장으로 추천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최측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푸는 “시정부의 인사 표준은 온전히 전문지식과 경력이어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²⁰⁾ 위안량은 저장성(浙江省) 출신이지만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북양정부 국무원 참의, 총통 쉬스창(徐世昌)의 비서를 역임했고, 그 후 1926년까지 전국 수리국(全國水利局) 총재로 일하면서 총 10년을 베이징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도시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았다.²¹⁾ 위안량은 시정 실무 경험이나 관련 전문지식도 풍부했다. 그는 1929년 4월에 상하이(上海) 특별시 시정부 참사 겸 비서장으로

17) 郭廷以, 『近代中國史綱』, 上海人民出版社, 2015, 424-425쪽.

18) 沈亦雲, 『亦雲回憶』, 上冊, 傳記文學出版社, 1980, 511-512쪽.

19) 沈亦雲, 『亦雲回憶』, 上冊, 264-265쪽; 董可, 「袁良與北平的三年市政計劃」, 『北京檔案史料』 2, 1999, 312쪽; 張學繼, 『黃郛傳』, 團結出版社, 2005, 177쪽. 1927년 3월에 국민혁명군이 난징을 점령하자 북양군벌 병사들이 도망치면서 인군을 약탈했는데, 이에 영국과 미국의 군함이 교민 보호를 구실로 난징을 포격하여 중국 군인과 시민 2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사건을 '난징사건'이라고 한다(牛大勇, 「1927年の南京事件に関する考察」, 『中國研究月報』 11, 1988).

20) 〈黃市長就職演說〉, 《申報》 1927.7.8, 13면.

21) 林呂建 編, 『浙江民國人物大辭典』, 浙江大學出版社, 2013, 485쪽.

로 임명되었고, 5월부터는 공안국장직도 겸임했다.²²⁾ 당시 상하이 시정의 실권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위원회는 시장 및 각 국 국장, 참사, 시 참의회 대표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비서장과 비서들도 참여하고 있었다.²³⁾ 이 시기 상하이특별시가 '대상하이계획(大上海計劃)'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베이핑시 공안국이 시정부 못지않은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위안량이 일본에서 경찰행정을 공부한 학력이나 상하이특별시 공안국장과 장쑤성정부(江蘇省政府) 보안처 처장을 역임한 경력은 시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돕는다는 점에서 곧 그의 경쟁력이었다.²⁴⁾

요컨대 베이핑시 시장과 그 휘하 실무진의 빈번한 교체는 정치지형의 급속한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시장의 임명도 전문성이나 능력 보다는 정치적 계파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는 베이핑시 도시발전 방향의 재확립과 도시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계파 간의 갈등은 1928년부터 거론된 관광 진흥 방안이 실행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22) 「委任令第一號: 茲派袁良爲本特別市政府參事此令」, 「委任令第三號: 茲派參事袁良兼代本特別市政府秘書長職務此令」, 『上海特別市市政府市政公報』 22, 1929, 命令1쪽; 「委任令第七三號: 茲派秘書長袁良兼代公安局局長仰即克日到局視事仍將接事日期連同該員履歷三份先行具報備查此令」, 『上海特別市市政府市政公報』 23, 1929, 命令4쪽.

23) 安克強(Christian Henriot), 張培德等 譯, 『1927-1937年的上海: 市政權, 地方性和現代化(Shanghai, 1927-1937: Municipal Power, Locality, and Modernization)』, 上海古籍出版社, 2004, 20쪽.

24) 「關於袁良」, 『(南京)中央日報』 1935.11.7, 4면; 劉國銘 編, 『中國國民黨百年人物全書』(下), 團結出版社, 2005, 1887쪽.

III. 관광 진흥정책의 부침

베이징이 정치 중심의 지위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8년 8월 12일, 《순천시보》는 앞으로 지면을 할애해 베이핑의 발전 방향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게재하겠다는 안내와 함께 북양정부 시기 국무원 참의 겸 총통부 비서를 지낸 쑹이진(曾彝進)의 「난징 정복 후의 베이핑 변영책」을 소개하였다.²⁵⁾ 그는 이 글에서 1. 베이핑을 공업지구로 지정, 2. 베이핑을 문화·대학지구로 지정, 3. 베이핑을 군사 중진으로 지정, 4. 베이핑을 사회사업의 중심으로 지정, 5. 시민에게 공예를 교육하여 수익 창출을 유도, 6. 전국 부호들의 베이핑 이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

그가 말하는 사회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의 관광 소비 지출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박람회 개최, 반찬라마(班禪喇嘛)의 베이핑 주석(駐錫) 추진, 각 종교의 자선단체 본부를 베이핑에 설치, 대형 경기장의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²⁷⁾ 특히 그는 이 글의 연재가 끝난 후 곧바로 「베이핑 평화기념 문화·공예 박람회 개최방안」이라는 별도의 글을 연재하며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글에 제시된 박람회 개최방안은 박람회와 관광의 연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10여 년간 돈이 돌지 않아 메말라버린 베이핑의 시장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보면 이만한 것이 없다”며 관광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확신했다.²⁸⁾

25) 曾彝進, 〈奠都南京後北平之繁榮策〉, 《順天時報》 1928.8.12, 7면.

26) 曾彝進, 〈奠都南京後北平之繁榮策〉(連載), 《順天時報》 1928.8.12-21, 7면.

27) 曾彝進, 〈奠都南京後北平之繁榮策〉, 《順天時報》 1928.8.17; 1928.8.19, 7면.

28) 曾彝進, 〈創辦北平和平紀念文化工藝博覽會案〉(連載), 《順天時報》 1928.8.22-26, 7면.

흥미로운 점은 『순천시보』가 이 글을 게재하는 사이 베이핑시장 허치공도 “시정부가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여 베이핑의 문화·공예 및 고유한 특성 일체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고, 곧이어 베이핑을 “문화지구·군사중진·공예지구”로 건설하자는 도시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²⁹⁾ 이 방안은 앞서 썩이진이 제시한 것과 매우 유사했다. 사료의 한계로 둘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1929년 1월에 시정부가 조직한 베이핑특별시 번영설계위원회(이하 번영위로 약칭)의 전문위원 명단에 썩이진이 들어가 있고, 박람회 개최 계획의 초안을 그가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건의가 당시 시정계획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³⁰⁾

번영위에 대해 말하려면 국민정부 내정부 부장 쉘두삐(薛篤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쉘두삐는 허치공의 방안에 호응하여 베이핑을 “동방 관광 중심”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요경비는 청조 내무부와 팔기의 부동산을 처리한 수입에서 지출할 것, 중하이(中海)·난하이(南海)·베이하이(北海)를 개방할 것, 그리고 계획을 추진할 위원회를 조직할 것 등 비교적 상세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안건은 1928년 9월 25일에 국민정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³¹⁾ 이에 내정부는 곧 “궁원(宮苑)·능묘(陵墓)·사묘(寺廟)의 개방, 유물 및 서화(書畫)의 전시, 여관과 교통편의 연결 등의 방법을 통해 스위스나 시후(西湖)와 같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관광지로 건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의 진흥책을 세우기 시작했다.³²⁾

29) 〈何市長談話：北平將舉行大博覽會〉, 《京報》1928.8.19, 3면; 〈關於北平市政, 何其鞏電陳中央〉, 《益世報》1928.9.30, 6면.

30) 〈計劃中之北平博覽會〉, 《世界日報》1929.2.3, 7면; 〈繁榮北平之新設計〉, 《大公報》1929.2.12, 4면; 〈北平展覽會〉, 《大公報》1929.2.22, 4면.

31) 「國民政府委員會第九十七次會議」, 『國民政府委員會會議記錄彙編(二)』, 國使館, 2000, 473쪽.

베이핑특별시 역시 시정회의를 통해 베이핑 문물정리회(文物整理會) 혹은 베이핑 변영설계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공용국장 리광한(李光漢)의 건의를 통과시켰다.³³⁾ 리광한은 리위잉의 추천으로 공용국장이 되었는데, 리위잉은 베이핑이 문화·관광도시로 건설되는 것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였기에 리광한의 건의는 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안건이 통과된 후, 시정회의는 공무국장(工務局長), 공용국장, 교육국장, 사회국장, 비서처(祕書處) 참사가 이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다.³⁵⁾ 이들은 회의를 통해 1928년 6월에 조직된 문물유지회(文物維持會)를 해체시키고, 문물유지회의 기금을 경비로 삼아 시정부 내에 변영위를 조직하기로 했다.³⁶⁾ 구미에서 유학하며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비서처 참사 타오뤄치엔(陶履謙)이 위원장에 위임되었고, 각 국장과 비서처 참사는 당연위원이 되었으며, 국민당 지도부 인사, 명승고적 관계자, 교통시설 관계자, 은행가,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학자, 여행애호가, 계획입안자 등 21명이 전문위원으로 초빙되었다.³⁷⁾

전문위원 중 다수가 프랑스와 일본 유학파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

32) 〈河北省政府征集繁榮北平市面計劃意見〉, 《大公報》1928.10.8, 3면.

33) 〈北平擬建文化遊歷區〉, 《新晨報》1928.11.7, 6면; 「北平特別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十三次常會(1928.11.07)」,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37쪽.

34) 李泰秦, 「何其鞏在北平」, 『天津文史資料選輯』第42輯, 天津人民出版社, 1988, 27쪽.

35) 「北平特別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十三次常會(1928.11.07)」,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37쪽.

36) 〈即將設立之北平繁榮設計委員會〉, 《新晨報》1928.11.27, 6면. 천형(陳恆)에 따르면, 북벌군이 북경에 입성하기 전에 동북군이 먼저 철수했기 때문에, 혼란 중에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손실될 것을 대비해 지역 민간단체와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문물유지회를 조직했다고 한다(劉乃和, 『陳恆年譜』,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2, 72쪽).

37) 〈北平繁榮仰仗諸公〉, 《新晨報》1929.1.20, 6면; 〈繁榮北平之新設計〉, 《大公報》1929.2.12, 4면.

다. 프랑스는 1910년에 이미 민생부(Ministry of the Quality Life) 산하 국가 관광 관리사무실(Office National du Tourisme)을 설립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었고, 일본의 경우 1912년에 민관 협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일본여행협회(Japan Tourist Bureau)를 조직하여 관광사업의 후발주자인 만큼 더욱 분발하고 있었다. 두 나라의 사업 경험은 베이핑이 참고하고 모방해야 할 성공사례였다.³⁸⁾

번영위는 1928년 12월부터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관광 진흥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1929년 2월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460명을 접대하여 실전 경험도 쌓았다. 완성된 초안에는 명승 주변 환경 정비 및 고적지 문화재 수리, 교통수단 간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방안, 명승고적 연합 입장권(Tour Pass) 판매 규정, 명승고적 안내서 편역, 박람회 개최 준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³⁹⁾ 그중 박람회 준비가 가장 먼저 진행되었는데, 이때 작성된 『베이핑 박람회 개요』에 의하면 베이핑과 그 인근의 고적지, 고건축, 유물, 고궁, 식물원과 동물원이 전람 범위에 포함되었다.⁴⁰⁾

세분화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번영위는 『베이핑특별시 번영설계위원회조직 장정』에 따라 총무, 계획, 선전, 편집 4개 소조로 세분되었다.⁴¹⁾

38) 王興斌 編, 『21世紀旅遊業發展戰略與經營管理全書』, 人民日報出版社, 2001, 108쪽; 中村宏, 「戦前における国際観光(外客誘致)政策: 喜賓會・ジヤパン・ツーリスト・ビューロー・国際観光局設置」, 『神戸学院法学』 36(2), 2006, 117쪽.

39) 「北平市政府市政會議決議案第二十一次常會(1929.01.16)」,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58쪽; 〈世界遊歷團昨返秦皇島〉, 《大公報》 1929.2.10, 4면; 〈北平繁榮計劃近訊〉, 《新晨報》 1929.2.15., 6면.

40) 〈北平市博覽會剛要〉, 《順天時報》 1929.1.31-2.3, 7면; 〈北平展覽會〉, 《大公報》 1929.2.22, 4면.

41) 「北平特別市繁榮設計委員會組織章程」, 『民國法規集刊』 第4集, 民智書局, 1929, 360-363쪽.

그런데 이 조직 장정에 따르면, 변영위는 의결권만 있을 뿐 행정권은 부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을 시행하고 경비를 조달하는 권한은 온전히 시장의 손에 달려있었다. 제1대 시장 허치공은 평위상과 장제스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전까지 난징국민정부에 협조적이었고 변영위의 업무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므로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제2대 시장 장인우는 처음부터 난징국민정부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는 취임 후 바로 시정부의 행정비용과 인원을 감축했고, 858원뿐인 변영위의 경비를 전면취소하며 관광 진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변영위는 유명무실해졌고 관광 진흥정책은 사실상 좌절되었다.⁴²⁾

중원전쟁이 끝난 후, 베이핑의 초라한 재정상태는 더 곤궁해졌다. 1930년 11월, 재정국장 왕타오는 도시 밖에서 자금을 끌어와야만 전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모든 고건축물을 보존·수리하고 시내와 교외의 도로상황을 개선하여 동서의 관광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변영계획을 세웠다.⁴³⁾ 이어 그는 요절한 변영위의 부활을 제안했고 시정 회의도 『베이핑 변영설계위원회조직 장정』을 통과시켰다.⁴⁴⁾

사실 이 같은 계획과 제안의 배후에는 장쉐량이 있었다. 중원전쟁이 막 끝난 1930년 6월, 문화적으로는 베이핑의 고건축물을 보호할 필요에서, 경제적으로는 문화중심이 되면 수공예 등 관련 실업을 발전시켜 재정 수입원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베이핑이 다시는 국민당 개조파의 근거지가 되지 않게 할 필요에서 우즈후이(吳稚暉)는 베이핑을 문화중심으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장쉐량과 중앙정부의 지지를

42) 〈張市長宣誓就職志錄〉, 《北平特別市市政公報》1, 1929, 紀事5쪽; 〈市府及各局縮減經費〉, 《新晨報》1929.6.20, 6면.

43) 〈王護理師長市政方針〉, 《華北日報》1930.11.1, 6면.

44) 「北平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九十九次常會(1930.11.19.)」,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58쪽.

받으며 동년 11월에 국민당 3차 4중전회(四中全會)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논의 끝에 지도 정리 베이핑시 문화위원회(指導整理北平市文化委員會, 이후 整理北平文化指導委員會로 개명, 이하 지도위로 약칭)를 조직하기로 결정되었다.⁴⁵⁾

지도위의 조직 장정은 곧 중앙정치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31년 2월에는 대략적인 활동계획과 재원조달 방안도 정해졌다.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만 원씩을 경자배상(庚子賠款) 경비로 처리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하고, 첫 1년간 베이핑의 교육사업, 위생설비·대중교통시설·고궁박물관 창고 및 소화설비 확충, 문화 전람회, 고건축물 보수, 수공업 진흥 등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였다.⁴⁶⁾ 1931년 4월에 중앙정치회의를 통과한 지도위 명단에는 회장 장제스, 부회장 장쉐량, 부회장 겸 간사 리위잉, 총간사 주치치엔이 간부로 포함되어 있었다.⁴⁷⁾ 그런데 지도위는 “시정의 원대한 계획과 건설”을 책임지는 지도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었으므로, 리위잉은 집행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겸대시장 후퇴위와 상의한 후 시정회의에 『베이핑시 시정설계위원회 조직 규칙 초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⁴⁸⁾ 이 초안에 의하면, 시정설계위원회(이하 설계위로 약칭)는 시정부 비서장, 참사, 각국 국장이 당연위원에, 시정부 주요 직원이 위원에 위임되었고, 정계·재계·교육계·문화계 인사 33인이 초빙위원으로 위임되었다. 부활을 기다리던 번영위가 행정권을 부여받아 설계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⁴⁹⁾

45) 〈用經濟方法維持北平文化〉, 《大公報》 1930.12.23, 3면.

46) 〈北平繁榮繫於此事〉, 《大公報》 1930.12.14, 3면; 〈北平文化指導委員會計劃大定成立匪遙〉, 《大公報》 1931.2.12, 4면.

47) 〈北京文化指委會委員百名均已發表〉, 《華北日報》 1931.4.4, 6면.

48) 〈胡若愚昨到平接任〉, 《大公報》 1931.4.2, 4면; 〈北平財教兩局長發表〉, 《大公報》 1931.4.5, 4면; 〈胡若愚就職後平市府第一次市政會議〉, 《大公報》 1931.4.9, 4면.

49) 〈北平市市政設計委員會組織規則〉, 《北平市市政公報》 93, 1931, 法規12쪽; 〈北平市

설계위는 1931년 6월에 정식으로 창립되었다.⁵⁰⁾ 반면 지도위는 언제 창립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3월로 예정되었던 창립총회가 장제스의 일정에 맞춰 4월 이후로 미뤄졌으나, 5월 말에 광저우(廣州) 국민 정부가 수립되면서 장제스는 물론이고 난징국민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지도위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부회장 장쉐량은 병에 걸려 앓아누워있었다.⁵¹⁾ 지도위가 흐지부지되어가던 7월, 저우따원이 베이핑시장 취임식에서 문화·관광 진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설계위는 순항이 예고되는 듯했다.⁵²⁾ 하지만 바로 이틀 후에 열린 언론인들과의 좌담회에서 그는 “베이핑의 번영을 문화에만 의지하는 것은 미덥지 못하다”고 말을 바꿨다.⁵³⁾

저우따원 임기 내 관광 진흥에 대한 베이핑시정부의 태도는 1933년 3월에 내정부가 의뢰한 『베이핑 번영계획 초안』의 심사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초안은 원래 1931년 3월에 베이핑의 자치주비위원회(籌備自治委員會)가 중앙정부에 올린 도시 활성화 방안 건의서인데 지도위가 정식출범한 이후 심사하기로 하여 방치되었다가, 1933년에 각 자치구公所(公所)의 주석들이 연명하여 다시 중앙정부에 올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심사를 받게 되었다.⁵⁴⁾ 여기서 시정부 비서처가 관광 진흥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府聘設計委員), 《大公報》 1931.5.20, 4면.

50) 〈平市設計會昨成立〉, 《大公報》 1931.6.26, 3면.

51) 是惕, 「對於整理北平文化指導委員會的一點意見」, 『大公報』 1931.4.9., 11면; 「李石曾談北平文化會」, 『大公報』 1931.4.12., 3면; 「李石曾抵平談話, 中央堅決希望和平」, 『大公報』 1931.6.5, 3면.

52) 「周大文昨宣誓就職」, 『大公報』 1931.7.7, 4면.

53) 〈財政困難爲平市建設最大障礙〉, 《華北日報》 1931.7.8, 6면.

54) 〈北平自治委員會擬具繁榮北平具體計劃〉, 《大公報》 1931.3.26., 4면; 「內政部關於北京各自治區公所呈請繁榮北平之計劃的咨文」(1933), 北京市檔案館藏, J001-007-00035. 이 초안은 제10 자치구公所 주석 량지아이(梁家義)가 자치주비위원회를 대표하여 1931년 3월에 작성한 것으로, 1930년 11월에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주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면, 관광업무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가이드 북을 발행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주라고 했고, 분산된 베이핑 명승고적의 관할권을 시정부로 이관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뜻을 박았다. 반면 공업 진흥과 관련된 건의에 대하여는 베이핑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⁵⁵⁾ 실제로 저우따원은 임기 내내 관광 진흥에 유보적 자세를 취하였고, 지도위와 설계위는 유아무야로 끝났다.

IV. 『베이핑 유람구 건설계획』의 수립

1933년 5월, 베이핑에 정무정리위원회가 세워진 이후 시정부와 중앙 정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시정 운영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취임 초기 위안량은 베이핑 시정이 “여태까지 일정한 계획이 없이 적당히 넘어갔다. 아무런 체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근본적인 정리와 번영을 꾀하는 방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베이핑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종합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이에 베이핑시는 1934년 1월부터 1936년 12월까지 3년을 ‘시정건설계획 초기’로 정하고, 사회·공안·교육·재정·토지·공정·위생·공용사업 방면에서 ‘최소한의 건설을 진행하기로 했다.’⁵⁶⁾

칭화(朱清華)가 제출한 『베이핑시 번영계획서 개요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朱清華, 『繁榮北平市計劃書提綱草案』, 北平市籌備自治委員會, 1930).

55) 「內政部關於北京各自治區公所呈請繁榮北平之計劃的咨文」(1933), 北京市檔案館藏, J001-007-00035.

56) 「北平市工務局關於市政初期建設計劃的意見及圖表」(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4-00051.

1933년 11월, 비서처는 『시정 초기 건설계획 거례(學例)』를 각 국(局)에 전달하며 2주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절차를 시정계획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3개월 만에 『시정 초기 건설계획(3년계획)』을 제정하였다.⁵⁷⁾ 이 계획은 베이핑시의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으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아 시행방안이 상세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정부는 이 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제창, 고건축물 보수, 도로·하수 시설 건설과 관련된 시행계획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1934년 9월에 『유람구』, 『베이핑시 구거(溝渠) 건설계획』, 『베이핑시 하도(河道) 정리계획』을 완성했다.⁵⁸⁾ 이 가운데 『유람구』는 베이핑의 도시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으로 다른 계획에 우선시되었다.⁵⁹⁾

1. 선결과제

시정부는 『유람구』실행에 앞서 다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첫째는 유람구의 범위 문제였다. 시정부는 유람구의 범위를 “베이핑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명승고적”으로 설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베이핑시 외에도 허베이성 창핑(昌平)현에 위치한 바다링(八達嶺)·밍링(明陵)·탕산(湯山)온천·묘오핑산(妙峰山)·탄저쓰(潭柘寺) 등의 명승고적이 포함된다.⁶⁰⁾ 시정부는 더 나아가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베이닝(北寧)·핑한(平漢)·핑수이(平綏) 철도의 교차지인 허베이성 완핑(宛平)현과 난위안(南苑)

57) 「北平市工務局關於市政初期建設計劃的意見及圖表」(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4-00051.

58) 「北平市政府爲建設北平市政擬定籌款辦法致行政院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呈」(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5-00116.

59)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1쪽.

60)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4쪽.

공향이 위치한 따싱(大興)현도 유람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핑현에는 탄광과 베이핑 전등회사의 발전소가 있었고, 따싱 현에는 베이핑 상수도회사의 상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두 현을 베이핑시로 편입시키는 것은 관광 진흥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했다.⁶¹⁾

사실 베이핑시 행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베이핑시정부와 허베이성정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미결과제로 남아 있었다.⁶²⁾ 시정부는 1933년 8월에 『베이핑시 근본 경계선 계획』을 작성하여 상술한 주장을 전개했고, 계획안은 동년 10월에 시정회의를 거쳐 내정부로 보내졌으나 양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⁶³⁾ 허베이성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해야 했고, 세 현의 주민들은 가옥세(房捐)·차량세(車捐)·가축세(牲畜捐) 등이 부가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⁶⁴⁾ 1934년 10월, 장제스가 세 현의 베이핑시 편입에 찬성을 표했음에도 반발은 계속되어 협상은 결국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⁶⁵⁾

둘째는 명승고적의 관할권 문제였다. 당시 베이핑 명승고적의 관할권은 중앙의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수리는 차치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조차 애를 먹고 있었다.⁶⁶⁾ 예컨대 내정부가 관리하는 베이핑의 제단(壇)

61)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政府二十二年下半年行政紀要』, 京城印書局, 1934, 92-93쪽.

62) 〈袁良昨談化解問題, 暫時停頓聽命中央〉, 《京報》1934.11.27, 3면.

63) 「北平市政府市政會議決議案第二百零一次常會(1933.10.25.)」,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262쪽, 269쪽.

64) 〈平市擴大問題尙無新發展〉, 《大公報》1934.11.24, 4면; 〈袁良今日赴京〉, 《世界日報》1934.11.30, 8면; 〈大宛昌三縣民衆堅決反對平市擴大〉, 《北平晨報》1934.12.5, 6면.

65) 王正華 編,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28』, 國史館, 2005, 380-381쪽.

6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3쪽.

과 사원(廟) 등은 대부분 “전용되어 군대나 행정기관 혹은 학교가 사용 중 이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⁶⁷⁾ 시정부는 베이핑의 역사자원이 관광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관할권의 분산을 꼽으며 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통일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1934년 10월, 장제스가 베이핑에 왔을 때 위안량은 이 문제를 직접 보고했다. 장제스는 “이번에 베이핑에 와서 보고 들은바, 이들 고건축물이 대부분 옛 모습을 잃었고 이대로 계속 둔다면 황폐해질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행정원장 왕징웨이에게 전보로 이 문제의 처리를 주문했다.⁶⁸⁾ 행정원에서 나서 준 덕분에 시정부는 1934년 11월과 1935년 1월에 순차적으로 천연박물관, 각 제단과 사원, 우타쓰(五塔寺), 환청(團城)을 접수했고 곧 이들을 수리할 준비에 나섰다.⁶⁹⁾

〈표 2〉 베이핑 명승고적의 현 관할기관 및 통일적 관리방안

명칭	현 관할기관	통일적 관리방안
天壇	內政部 壇廟管理所	시정부로 이관하여 관리
地壇		
先農壇		
日壇		
月壇		
市郊各祠廟	內政部 壇廟管理所	시정부로 이관하여 관리
天然博物院	行政院 ⁷⁰⁾	

67) 〈故都文物整理之一頁〉, 《市政評論》 3(8), 1935, 11쪽.

68) 〈袁良昨談化解問題, 暫時停頓聽命中央〉, 《京報》 1934.11.27., 3면; 〈平市壇廟劃歸市府負責管理〉, 《大公報》 1935.1.3, 10면.

69) 「袁良昨談化解問題, 暫時停頓聽命中央」, 『京報』 1934.11.27., 3면; 「平市壇廟劃歸市府負責管理」, 『大公報』 1935.1.3, 10면.

명칭	현 관할기관	통일적 관리방안
五塔寺	教育部 古物保管委員會	
團城		
故宮博物院	行政院	시정부와 공동 관리
歷史博物館	中央研究院	
古物陳列所	行政院	
碧雲寺	碧雲寺維持會	현 관할기관에 일임
香山靜宜園	香山慈幼院	
雍和宮	蒙藏委員會	시정부에 감독권 부여
東四黃寺		
前後黑寺		
達賴樓		
淸淨化城廟		
資福院		
白塔寺		
隆福寺		
護國寺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5-9쪽)

셋째는 재원의 확보였다. 유람구의 건설비용은 약 249만 6천 원으로 추산됐다. 매년 적자인 베이핑시의 재정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으므로 시정부는 재원을 확보할 세 가지 계획을 세웠다. 하나는 수년간 미 지급된 교육보조금(教育協款)과 담배보조금(卷煙補助費) 총 247만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벨기에 경자배상위원회(中比

70) 『유람구』에는 천연박물관(1934년에 農事試驗場으로 개명)이 행정원 관할로 기록되어있으나, 중앙연구원에서 관리했다는 기록과 교육부 산하 국립베이핑연구원에서 관리했다는 기록도 있다(王正華 編,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28』, 國史館, 2005, 379쪽; 北京動物園管理處 編, 『北京動物園志』, 中國農業出版社, 2002, 99쪽).

庚款委員會)와 상의하여 아직 할당되지 않은 배상금 일부로 원래 베이핑의 도시 건설에 지원해주기로 한 이탈리아 경자배상(中意庚款)을 대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하나는 베이핑 시정부의 공채발행을 비준해주고 공채의 담보금을 매월 경자배상금에서 지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시정부는 『베이핑시 공채발행 방법』까지 작성하여 이상의 계획을 도시계획과 함께 주 베이핑 정무정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⁷¹⁾

세 번째 계획은 미지수였고, 당시 “국고가 부족하여 여러 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 베이핑시 뿐만이 아닌”상황이라 첫 번째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에, 시정부는 해당 위원회 위원인 리위잉이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두 번째 계획에 기대를 걸었다.⁷²⁾ 그런데 1934년 10월에 장제스가 베이핑에 오고, 곧이어 11월에 재정부 부장 콩상시(孔祥熙)도 베이핑에 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들은 『유람구』가 “현시점에서 매우 긴요한 계획이므로 최대한 단기 내에 실현되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콩상시는 재정부에서 건설비용을 보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유람구』의 시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⁷³⁾

2. 주요내용

시정계획 심사위원회는 『시정 초기 건설계획 예시』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사하면서 사회국이 제시한 “유람구의 개설을 준비하여 관광사업을

71) 「北平市政府爲建設北平市政擬定籌款辦法致行政院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呈」(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5-00116.

72) 「北平市政府爲建設北平市政擬定籌款辦法致行政院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呈」(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5-00116.

73)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國民政府檔案』, 國史館藏, 001-012100-025; 〈北平擴大市區〉, 《大公報》1934.11.22, 4면.

제창한다”는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며 “마땅히 베이핑시 전체를 유람구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계획에 숙박 단지, 시립 극장, 시립 상가, 관광업무전담기구 등의 건설 항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회국은 심사의견에 따라 계획을 개편하여 「베이핑시 전체를 유람구로 삼는 관광사업 제창계획」(이하 「유람사업」으로 약칭)을 완성하였다.⁷⁴⁾

「유람사업」은 1928년 이후 계속되어 온 관광 진흥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렴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세부 항목은 이전의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전의 논의가 관광사업을 도시 불황의 일시적 해결책 혹은 여러 도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다뤘은 것과

〈표 3〉 「유람사업」과 『유람구』의 항목 비교

	「유람사업」		『유람구』
1 년 차	위원회 조직	3 년 내 완 성	명승고적 보수
	선전처 설립		
	[명승고적] 보수 및 정리		교통건설
2 년 차	교통편 신설		관광객 숙박시설 건설
	관광 가이드 양성		
	국산품진열관과 협력		
3 년 차	관람료 및 공예품 가격 규범화		위락시설 건설
	시립 극장 설립		
	‘황궁호텔’설립		‘유람사(遊覽社)’설립
	시영 상가 설립		
	‘여행사’설립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74)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달리, 「유람사업」은 도시의 발전 방향을 관광도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도시 포지셔닝의 변화는 『유람구』가 베이핑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두 계획의 목차만 비교해 보아도 전자가 후자의 전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람사업」의 ‘여행사’ 항목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일개 도시가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는 일이라 생략”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⁷⁵⁾ 이로 미루어 ‘여행사’는 중앙정부에 소속되는 관광업무전담기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전처 설립, 관광 가이드 양성, 국산품 진열관과의 협력, 관광료 및 공예품 가격 규범화 등과 같은 관련 항목들을 ‘여행사’설립 범주에 포함시키면 『유람구』와의 유사도는 더욱 명료해진다. 요컨대 『유람구』는 「유람사업」이 현황분석, 세부계획의 의의와 목표 등만 간략히 서술해 놓은 것에 시행절차와 추산비용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완성된 것이다. 『유람구』는 총 다섯 개의 세부계획으로 나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고적 보수계획은 보수대상·상세작업·소요 도구·추산비용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보수대상은 훼손 정도와 관광객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성 성벽, 동남 각루(角樓), 성루(城樓) 및 전루(箭樓), 패루(牌樓), 티엔탄(天壇), 콩야오(孔廟), 귀즈젠(國子監), 이허위안(頤和園), 위첸산(玉泉山), 삐윈스(碧雲寺), 상산(香山), 빠따추(八大處), 서산 풍경림(西山造風景林), 베이하이 공원, 중산공원, 티엔안먼(天安門), 시안먼(西安門), 띠안먼(地安門), 종루(鐘樓)로 선정되었으며, 자금성은 고궁박물관이 보수를 맡기로 했다.⁷⁶⁾

둘째, 도로·교통건설 계획은 시내와 교외를 구분하여 도로명, 시작과

75)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13-16쪽.

끝 지점, 길이, 면적, 도로포장 재료, 미터 당 단가, 추산비용, 보수이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명승고적 사이를 잇는 노선, 명승고적과 교통 요충지를 잇는 노선인 시내 15구간 및 교외 8구간은 ‘관광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공 시티투어버스’를 개통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⁷⁷⁾ 한편, 시정부는 “이걸[명승고적] 고치면 저게[도로] 무너지고, 저걸 고치면 이게 무너져서 유람구가 쇠신하는 날은 아마도 끝내 오지 않을 것”이라며 두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⁷⁸⁾

셋째, 시정부는 외관은 중국식이고 내부시설은 현대적인 관광객 숙박 단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도 대부분 외국인이 운영하는 베이징호텔이나 리우궈(六國)호텔을 숙소로 선호하였으므로 이들과 전략적으로 차별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유람사업’에서는 자금성 내에 적당한 구역을 선택해 호텔로 개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유람구』에서는 중남해 내 8백여 개의 방을 객실로 개조해 ‘고상한 가든 호텔(高尚園林飯店)’을 건설한다고 수정되었다.⁷⁹⁾

넷째, 시정부는 중남해 부근에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을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희곡의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중국 희곡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민중을 상대로 선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건축양식과 실내디자인 모두 서양의 것을 본뜨기로 한 처음 계획을 수정하여 내부시설은 “시대조류에 맞는 최신 극장의 것”이지만 외관은 ‘중국 고건축 양식’인 극장을 짓기로 했다.⁸⁰⁾ 여기서 말하는 ‘중국 고건축 양

77)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16-19쪽.

78)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8-9쪽.

79)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19-24쪽.

80)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25-26쪽.

식'은 중국 북방 궁전식 큰 지붕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고유의 양식'으로, 이 양식은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난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자주 채용되었다.⁸¹⁾ 남방 대도시의 대극장은 이 대극장의 롤모델이었다.

다섯째, '유람사'는 민관합동으로 운영될 관광업무전담기관으로, 주로 대외·대내선전을 담당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일본이 매년 관광 선전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선전이야말로 “『유람구』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유람사'는 가이드 북의 편집과 인쇄, 베이핑 명승고적을 주제로 한 영상 촬영 등을 통한 선전뿐 아니라, 관광 가이드의 양성과 관리를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접대도 책임지기로 했다. 당시 인력거꾼들이 간단한 영어를 배워 가이드를 자처하기도 했는데, 시정부는 그들이 “국체를 모욕”하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와 도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전문적 가이드가 “국가와 민족의 입장을 충분히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유람사'는 상술한 숙박 단지와 대극장의 건설과 경영도 책임지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관광업무에 참여할 계획이었다.⁸²⁾

V. 맺음말

난징국민정부 시기 수도의 지위를 잃은 베이핑은 관광 개발을 통해 도

81) '중국 고유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國都設計技術專員辦事處 編, 『首度計劃』, 南京出版社, 2006, 60-63쪽 참고.

82)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27-30쪽.

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공업만이 베이핑을 쇠락으로부터 구원해줄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국방건설을 제쳐두고 관광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았다.⁸³⁾ 하지만 산업인프라가 부재한 소비도시의 불황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산업이 관광업이라는 인식이 늘면서, 경제적으로는 베이핑시의 수입원을 창출할 필요에서, 정치적으로는 베이핑 도시공간의 정치색을 배제할 필요에서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주도 아래 관광 진흥책은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난징국민정부가 특별한 성공으로 달성한 통일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고, 각 군벌 사이에는 세력확보를 위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베이핑의 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1933년 5월에 주 베이핑 정무정리위원회가 세워져 중앙과 베이핑의 정치 노선이 일원화되기 전까지 관광 진흥정책은 부침이 심하였다. 제1대 시장인 허치공의 지지로 ‘변영위’가 조직되어 관광 진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제2대 시장인 장인우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장쉐량의 지지 하에 ‘지도위’와 ‘설계위’가 조직되어 각급 정부가 관광 진흥의 의지를 불태웠으나, ‘지도위’의 창립이 흐지부지로 끝나고 제3대 시장 저우따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결국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제4대 시장으로 취임한 위안량은 시정 운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들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다.⁸⁴⁾ 이들은 베이핑의 발전 방향을 관광도시로 설

83) 베이핑을 문화중심으로 건설하자는 논의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베이핑을 군사 중립지로 설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교적 많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李劍靑, 『重寫舊京: 民國北京書寫中的歷史與記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7, 29-38쪽 참고.

84) 학력을 예로 들면, 위안량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경찰행정을, 재정국장 청위안판(程遠凡)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무국장 탄방선(譚炳訓)은 북양

정하고 그동안의 계획과 건의들을 비판적으로 수렴·보완하여 “화베이 지역 모든 건설 중에 가장 중요한 건설” 계획인 『유람구』를 수립하였다.⁸⁵⁾ 이 계획은 도시 기반시설과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옛 수도의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유람구』의 실시에 동의하면서도 베이핑의 정체성을 ‘민족’문화의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중시하였다. 시정부는 이에 타협하여 『유람구』를 『구도(舊都) 문물정리계획』으로 재편하였으나 이것이 관광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발전 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⁸⁶⁾

시정부는 실제로 『유람구』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베이핑의 고건축물 가운데 관광객에게 노출이 많은 건축물,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수리범위가 큰 건축물 등이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⁸⁷⁾ 이 시기 복원된 고건축물로는 티엔탄, 시엔농탄(先農壇), 명창링(明長陵), 이허위안, 비윈스 내의 부분적 건축물과 일부 패루, 각루, 문루(門樓) 등이 있다.⁸⁸⁾ 시내 4구간과 교외 2구간 도

대학에서 건축학을, 위생국장 팡이지(方頤積)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공위생을 전공하였고, 사회국장 차이위안(蔡元)은 프랑스 파리정치경제학원을 졸업한 재원이었다(趙可, 『市政改革與城市發展』,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4, 附錄附表2: 「社會局長蔡元報告接印視·重定社會局組織的呈文及任免科長·主任·秘書等的局令」(1932), 北京市檔案館藏, J002-001-00102; 譚天健, 「回憶父親譚炳訓」, 『老照片』 52, 山東畫報出版社, 2007, 17쪽).

85)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31쪽.

86)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國民政府檔案, 台灣國史館藏, 001-01210 0-025.

87) 〈故都文物整理之一頁〉, 《市政評論》 3(6), 1935, 26쪽.

88)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 編,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報告』,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鉛印本, 1936 참고.

로도 이 시기에 보수되었는데, 모두 명승고적이나 교통 요충지 사이를 잇는 ‘관광도로’이다.⁸⁹⁾ 한편, 시정부의 주도로 버스관리처가 설립되어 1935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4개의 시영버스 노선이 개통되었다. 이허위안과 상산을 목적지로 하는 교외 노선은 그중 가장 먼저 개통된 노선이다.⁹⁰⁾ 관리처는 단체 관광객을 위해 11월부터 버스 대절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⁹¹⁾

경비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숙박 단지와 대형 극장의 건설, 그리고 관광업무전담기구의 설립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시정부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위생 정비에 힘을 쏟았다. 도로보수 방면에서는 1933년도 1년간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면적이 1929년 1월부터 1932년 5월까지의 총면적보다 더 넓은 정도로 포장 도로가 증가했으며, 비포장도로를 정비한 면적은 1933년도 이전보다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⁹²⁾ 도로의 청결을 위하여 각 국 국장과 직원, 지역유지, 시 자치위원회, 시 상업·광업·석탄산업 동업 공회 주석 등이 참여하는 청결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위생처(1934년 7월에 위생국으로 승격)와 베이닝·핑한·핑수이 철도국의 협조하에 시내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반출시켜 처리하였다. 이로써 고질적인 도로변 쓰레기 문제를 “반년도 안되어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민들은 기적이라고 놀라워했다.”⁹³⁾ 또 이 시기 위생국이 분뇨처리와 식수·식품의 위생 관리

89)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統計覽要』,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編纂股, 1936, 33쪽.

90) 〈公共汽車即正式開駛〉, 《北平晨報》1935.8.19., 6면.

91) 〈公共汽車訂定遊覽專車價格〉, 《京報》1935.11.7, 6면.

92)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統計覽要』, 56쪽. 1933년도는 1933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이다.

93) 〈市府組清潔委員會〉, 《華北日報》1933.7.22, 6면; 譚炳訓, 〈戰前北平市政之領導作

에 힘쓰고, 공무국이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시 외국인들의 인상 속에 쓰레기와 악취로 남아있던 베이핑의 이미지도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⁹⁴⁾

중일전쟁의 발발로 『유람구』의 전면적 실시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1947년에 발행된 『베이핑시 도시계획 설계자료』 제1집에 의하면 중일전쟁이 끝난 후에도 베이핑의 도시건설강령에는 '유람구의 건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⁹⁵⁾ 요컨대 난징국민정부가 수립된 초기부터 국민당이 내전에 패배하고 대만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관광 진흥은 줄곧 베이핑 도시발전전략의 핵심이었다. 여기에서는 『유람구』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타협 과정, 구체적 시행과정, 도시 정체성의 재확립 과정 등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020.11.20. 투고 / 2020.12.17. 심사완료 / 2020.12.24. 게재확정)

風), 《市政評論》10(5), 1948, 6쪽.

94) Edward Alsworth Ross, 何藥譯, 『變化中的中國人』, 譯林出版社, 2015, 1-4쪽.

95) 北平市工務局編, 『北平市都市計劃設計資料』第一輯, 北平市工務局, 1947, 53-54쪽.

[Abstrac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lan to Revitalize Beiping City
: Focusing on Tourism Promotion Policy in the Early days of
the Nanjing National Government

Hong, Young-mi

In 1928, when the National Government confirmed Nanjing as the capital city, Beijing was revised from the capital to Beiping, a provincial city. The loss of capital status accelerated the city's recession,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suffered chronic financial difficulties.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promoted a plan to revitalize Beiping with the main focus of tourism promotion. However, even after the reunification of China was completed with the North Expedition, the power struggle between Chiang Kai-shek and the warlords continued, eventually affecting the rapid change of political topography in Beiping. Amid frequent changes between the mayor and the working staff, the tourism promotion policy has also been in a state of ups and downs. In 1935, the situation changed when the 'Political Reorganiz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Beiping.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were politically unified,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Beiping Tourist Zone Construction Plan' based on the discussions and plans so far. This plan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Beiping as a tourist city, and promoted the restoration of old buildings, road and traffic con-

struction, tourist accommodation construction, recrea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tourism agency.

□ Keyword

Nanjing National Government, Municipal Government, Beiping, Tourism, Tourist Zone

[참고문헌]

1. 사료

「北平特別市繁榮設計委員會組織章程」, 『民國法規集刊』第4集, 民智書局, 1929.

朱清華, 『繁榮北平市計劃書提綱草案』, 北平市籌備自治委員會, 1930.

「內政部關於北京各自治區公所呈請繁榮北平之計劃的咨文」(1933), 北京市檔案館藏, J001-007-00035.

「北平市政府令社會局擬具市政初期建設計劃方案及實施步驟」(1933-1934), 北京市檔案館藏, J002-007-00076.

北平市政府 編, 『北平遊覽區建設計劃』, 北平市政府, 1934.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政府二十二年下半年行政紀要』, 京城印書局, 1934.

「舊都文物整理委員會組織規程」(1934-1937), 『國民政府檔案』, 國史館藏, 001-012 100-025

「北平市工務局關於市政初期建設計劃的意見及圖表」(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 4-00051

「北平市政府爲建設北平市政擬定籌款辦法致行政院駐北平政務整理委員會呈」(1935), 北京市檔案館藏, J001-005-00116.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 編,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報告』, 北平市文物整理實施事務處鉛印本, 1936.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統計股 編, 『北平市統計覽要』, 北平市政府秘書處第一科編纂股, 1936.

北平市工務局 編, 『北平市都市計劃設計資料』第一輯, 北平市工務局, 1947.

趙家驥 選編, 「1928年至1938年北京市政府歷任職官表」, 『北京檔案史料』1, 1987.

「北平特別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十三次常會(1928.11.07.)」,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北平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二十一次常會(1929.01.16.)」, 『北平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北平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九十九次常會(1930.11.19.)」, 『北平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北平市政府市政會議議決案第二百零一次常會(1933.10.25.)」, 『北平歷屆市政府市政會議決議錄』, 中國檔案出版社, 1998.

「國民政府委員會第九十七次會議」, 『國民政府委員會會議記錄彙編(二)』, 國史館, 2000.

王正華 編, 『蔣中正總統檔案: 事略稿本28』, 國史館, 2005.

〈委任令第一號: 茲派袁良爲本特別市政府參事此令〉, 〈委任令第三號: 茲派參事袁良兼代本特別市政府祕書長職務此令〉, 《上海特別市市政府市政公報》22, 1929.

〈委任令第七三號: 茲派祕書長袁良兼代公安局局長仰即克日到局視事仍將接事日期連同該員履歷三份先行具報備查此令〉, 《上海特別市市政府市政公報》23, 1929.

〈張市長宣誓就職志錄〉, 《北平特別市市政公報》1, 1929.

〈北平市市政設計委員會組織規則〉, 《北平市市政公報》93, 1931.

林頌河, 〈統計數字下的北平〉, 《社會科學雜誌》2(3), 1931.

〈社會局長蔡元報告接印視·重定社會局組織的呈文及任免科長·主任·祕書等的局令〉(1932), 北京市檔案館藏, J002-001-00102.

雋冬, 〈平市財政制度之檢討〉, 《市政評論》2(2), 1934.

〈五年來本市歲入之分析〉, 《北平市政府統計特刊》2, 1934.

〈故都文物整理之一頁〉, 《市政評論》3(6), 1935.

〈故都文物整理之一頁〉,《市政評論》3(8), 1935.

譚炳訓,〈戰前北平市政之領導作風〉,《市政評論》10(5), 1948.

〈黃市長就職演說〉,《申報》1927.7.8.

〈奠都南京後北平之繁榮策〉(連載),《順天時報》1928.8.12-21.

〈何市長談話: 北平將舉行大博覽會〉,《京報》1928.8.19.

〈創辦北平和平紀念文化工藝博覽會案〉(連載),《順天時報》1928.8.22-26.

〈關於北平市政, 何其鞏電陳中央〉,《益世報》1928.9.30.

〈河北省政府征集繁榮北平市面計劃意見〉,《大公報》1928.10.8.

〈北平擬建文化遊歷區〉,《新晨報》1928.11.7.

〈即將設立之北平繁榮設計委員會〉,《新晨報》1928.11.27.

〈北平經濟狀況之今昔觀〉,《新晨報》, 1928.12.4.

〈北平繁榮仰仗諸公〉,《新晨報》1929.1.20.

〈北平市博覽會剛要〉,《順天時報》1929.1.31.-2.3.

〈計劃中之北平博覽會〉,《世界日報》1929.2.3.

〈世界遊歷團昨返秦皇島〉,《大公報》1929.2.10.

〈繁榮北平之新設計〉,《大公報》1929.2.12.

〈北平繁榮計劃近訊〉,《新晨報》1929.2.15.

〈北平展覽會〉,《大公報》1929.2.22.

〈市府及各局縮減經費〉,《新晨報》1929.6.20.

〈北平市長問題〉,《益世報》1930.10.8.

〈王護理師長市政方針〉,《華北日報》1930.11.1.

〈北平繁榮系於此事〉,《大公報》1930.12.14.

〈用經濟方法維持北平文化〉,《大公報》1930.12.23.

〈宋子文返京〉,《西安日報》1931.1.19.

〈市府訴窮〉,《華北日報》1931.1.27.

- 〈北平文化指導委員會計劃大定成立匪遙〉, 《大公報》 1931.2.12.
- 〈北平自治委員會擬具繁榮北平具體計劃〉, 《大公報》 1931.3.26.
- 〈胡若愚昨到平接任〉, 《大公報》 1931.4.2.
- 〈北京文化指委會委員百名均已發表〉, 《華北日報》 1931.4.4.
- 〈北平財教兩局長發表〉, 《大公報》 1931.4.5.
- 〈對於整理北平文化指導委員會的一點意見〉, 《大公報》 1931.4.9.
- 〈胡若愚就職後平市府第一次市政會議〉, 《大公報》 1931.4.9.
- 〈李石曾談北平文化會〉, 《大公報》 1931.4.12.
- 〈北平市府聘設計委員〉, 《大公報》 1931.5.20.
- 〈李石曾抵平談話, 中央堅決希望和平〉, 《大公報》 1931.6.5.
- 〈平市設計會昨成立〉, 《大公報》 1931.6.26.
- 〈周大文昨宣誓就職〉, 《大公報》 1931.7.7.
- 〈財政困難爲平市建設最大障礙〉, 《華北日報》 1931.7.8.
- 〈市府組清潔委員會〉, 《華北日報》 1933.7.22.
- 〈北平擴大市區〉, 《大公報》 1934.11.22.
- 〈平市擴大問題尙無新發展〉, 《大公報》 1934.11.24.
- 〈袁良昨談化解問題, 暫時停頓聽命中央〉, 《京報》 1934.11.27.
- 〈袁良今日赴京〉, 《世界日報》 1934.11.30.
- 〈大宛昌三縣民衆堅決反對平市擴大〉, 《北平晨報》 1934.12.5.
- 〈平市壇廟劃歸市府負責管理〉, 《大公報》 1935.1.3.
- 〈公共汽車即正式開駛〉, 《北平晨報》 1935.8.19.
- 〈關於袁良〉, 《(南京)中央日報》 1935.11.7.
- 〈公共汽車訂定遊覽專車價格〉, 《京報》 1935.11.7.

2. 저서

沈亦雲, 『亦雲回憶』 上冊, 傳記文學出版社, 1980.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內蒙古自治區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 編,『內蒙古文史資料』第24輯,內蒙古文史書店,1986.
- 李泰棻,「何其鞏在北平」,『天津文史資料選輯』第42輯,天津人民出版社,1988.
- 顏品忠主編,『中華文化制度詞典』,中國國際廣播出版社,1998.
- 陳玉堂 編,『中國近現代人物名號大辭典』續編,浙江古籍出版社,2001.
- 王興斌 編,『21世紀旅遊業發展戰略與經營管理全書』,人民日報出版社,2001.
- 北京動物園管理處 編,『北京動物園志』,中國農業出版社,2002.
- 唐德剛 訪錄,『張學良世紀傳奇』上,山東友誼出版社,2002.
- 劉乃和,『陳恆年譜』,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2.
- 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 編,『北京志:政務卷民政志』,北京出版社,2003.
- Madeleine Yue Dong, *Republican Beijing: The City and Its Histories*,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劉蘇,「民國時期北平歷任市長及有關問題」,『檔案與北京史國際學術討論會文集』上冊,中國檔案出版社,2003.
- 安克強(Christian Henriot),張培德等 譯,『1927-1937年的上海:市政權,地方性和現代化(Shang hai, 1927-1937: Municipal Power, Locality, and Modernization)』,上海古籍出版社,2004.
- 趙可,『市政改革與城市發展』,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2004.
- 張學繼,『黃郛傳』,團結出版社,2005.
- 劉國銘 編,『中國國民黨百年人物全書』(上),團結出版社,2005.
- 劉國銘 編,『中國國民黨百年人物全書』(下),團結出版社,2005.
- 國都設計技術專員辦事處 編,『首度計劃』,南京出版社,2006.
- 譚天健,「回憶父親譚炳訓」,『老照片』52,山東畫報出版社,2007.
- 許慧琦,『故都新貌:遷都後到抗戰前的北平城市消費(1928~1937)』,台灣學生書局,2008.
- 王亞男,『1900~1949年北京的城市規劃與建設研究』,東南大學出版社,2008.

- 曹子西 編, 『北京通史』 第9卷, 北京燕山出版社, 2012.
- 魯海, 『青島民國往事』, 青島出版社, 2012.
- 林呂建 編, 『浙江民國人物大辭典』, 浙江大學出版社, 2013.
- 王煦, 『舊都新造: 民國時期北平市政建設研究(1928-1937)』, 北京人民出版社, 2014.
- 孫冬虎·王均, 『民國北京(北平)城市形態與功能演變』, 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15.
- 郭廷以, 『近代中國史綱』, 上海人民出版社, 2015.
- 劉紹唐主 編, 『民國人物小傳』 第7冊, 三聯書店, 2015.
- Edward Alsworth Ross, 何蘊 譯, 『變化中的中國人』, 譯林出版社, 2015.
- 李劍青, 『重寫舊京: 民國北京書寫中的歷史與記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7.

3. 논문

- 牛大勇, 「1927年の南京事件に関する考察」, 『中國研究月報』 11, 1988.
- 董可, 「袁良與北平的三年市政計劃」, 『北京檔案史料』 2, 1999.
- 中村宏, 「戦前における国際観光(外客誘致)政策: 喜賓会・ジヤパン・ツーリスト・ビューロー・国際観光局設置」, 『神戸学院法学』 36(2), 2006.
- 王謙, 「北平文化旅遊中心建設與故都城市空間生産」, 『中國近代建築研究與保護』 10, 清華大學出版社, 2016.
- 王建偉, 「20世紀30年代北京的舊都文物整理計劃」, 『北京檔案』 7, 2019.
- _____, 「國都南遷與北平城市發展路徑的討論及其規劃(1928—1935)」, 『江蘇社會科學』 1, 2020.
- 홍영미, 「베이핑의 재정실태와 관광 진흥 논의」, 『도시연구』 25, 2020.

